

자신을 닦아 君子에 이르러라

불교로 읽는 古典

유교 경전 <논어>



이종수

순천대 불교문화연구센터장

우리는 가끔 역사 드라마나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논어> 구절을 인용하는 말을 듣게 된다. 그럴 때면 말하는 사람이 괜히 유식해 보이기도 하고 고전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더군다나 논어의 조금 긴 구절을 한문으로 말한 후에 우리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와~” 하며 탄성을 지르는 경우도 있다. 물론 <논어>만이 아니다. <맹자>도 그렇고, <중용>의 구절을 인용해도 그렇다. 한문이 교육 과정에서 거의 사라진 이후 논어와 같은 고전들이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문이 우리 생활에서 멀어졌다 고 해서 <논어>나 <맹자>와 같은 고전이 우리에게 그 의미까지 멀어진 것은 아니다. 비록 한글로 번역된 글이긴 하지만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조선시대 선비들이 읽었던 고전들을 읽고, 그 속에서 교훈을 얻고 있다. 다만 오늘날 사람들은 조선시대보다 훨씬 다양한 고전들을 접하고 있어서 조선의 선비들이 느꼈던 논어와 맹자의 가치보다 덜 중요하게 느끼고 있을 뿐이다. 근대 이후 서양 중심의 가치관으로 발전한 탓에 서양의 고전이 현실에 더 적합한 측면이 있고, 또한 교통과 미디어의 발달로 철학적 사고의 방법이나 생활 환경도 글로벌화되면서 점차 서양과 동양이 동일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기술은 서양의 뒤를 쫓고 있지만 문화는 동양의 고전적 가치가 앞으로 더욱더 높게 인정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는 오늘 수천 년 전 동양의 고전으로서 일컬어졌던 논어를 통해 불교를 이야기하고 불교를 통해 논어를 읽어보고자 한다. 내가 불교를 처음 접했던 것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면서부터였지만 불교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인식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때였다. 고등학생 불교 동아리에 나가면서 절에 가서 <천수경>을 외우고 108배를 하고 <금강경>을 배웠다. 그 때 이후 나름대로 연가법이 무엇인지, 사성제가 무엇인지, 중도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다. 세상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고 나 스스로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자 빈민하는 세월도 보냈다. 그런 시절을 보내며 한국불교사를 공부하던 즈음에

조선시대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 유교를 알아야겠다고 생각하고 한국고전번역원에 입학하여 사서삼경(四書三經: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역경)을 한문으로 배웠다.

사서삼경이야 번역본들이 있으므로 굳이 한문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배울 필요는 없었겠으나 나름 학자가 되겠다고 공부하던 시기여서 한문도 배우고 유교도 배우자는 심산이었다. 공 먹고 알 먹자는 심보가 작용한 것이다. 그렇게 처음 <논어>를 꼼꼼히 읽어보았다.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朱子, 1130-1200)의 해석까지 보는데 거의 1년을 꼬박 논어에 몰두하였다. 원문 그대로의 논어는 번역본으로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고전의 깊은 역사성이 그 속에 살아 숨 쉬는 듯 내게 다가왔고 이 책이 불교와 어찌 다르지 생각하며 읽는 것이 나는 재미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

그렇게 <논어>를 다 읽고 난 이후, 나는 <논어>에 대한 선입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고려 말 이후 성리학자들은 불교를 비판하였는데, 불교는 무부무군(無父無君), 즉 부모도 버리고 임금도 버리고 떠나 수행하므로 효(孝)와 충(忠)을 저버린 가르침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런 성리학자들의 성전(聖典)이 바로 논어이므로 논어에는 불교와 다른 사상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는 선입관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논어>를 통해 공자의 가르침이 불교를 비판하는 내용보다는 불교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논어>를 성(性)과 리(理)의 측면에서 해석한 주자의 주석을 보았기 때문에 불교를 비난하였던 것이, 공자의 가르침 속에서는 그런 비판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기에 송나라 주자의 성리학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 많은 유학자들이 불교를 신앙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공자의 유학과 주자의 유학은 어떻게 다른가? 공자의 유학은 정치학이고 주자의 유학은 성리학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정치가의 자세와 임무에 대해 끊임없이 말한다.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군주가 어찌 해야 하는지, 선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군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군주와 군자의 공을 훌륭하게 할 수 있음과 군자의 언행 효를 재해석한다. 불교의 총과 효는 출가를



현재 유교를 있게 한 중국 고대 사상가 공자(孔子)의 진영. 유교의 경전인 <논어>는 유교의 경전이며 공자의 가르침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옛 문헌이다. <논어>에는 공자와 제자와의 문답 위주로 공자의 발언과 행적, 인생의 교훈이 되는 말들이 간결하고도 함축성 있게 기재돼 있다.

백성을 위한 정치가의 자세와

군자의 길을 실천 공자 <논어> 자기 절제와 반성, 군자의 요건

공자·부처 “학문과 수행 통해 깨달음 이루어라” 강조

통한 자기 깨달음으로써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지만, 성리학의 총과 효는 인간의 근본으로써 한시도 몸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도리이다.

결국 주자의 가르침은 불교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론이 되었다. 그러므로 주자를 견어내고 논어를 읽는다면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완하는 또 다른 성인의 가르침을 배우게 된다.

혹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완전하여서 보완할 것이 없다고 말할지 모른다.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빠진 것이 없다. 정치, 경제, 군사, 철학, 역사 등 그 모든 원리들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어떤 분야든지 전문가가 있게 마련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心)’을 밝혀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데 좀 더 집중되어 있다면, 공자의 가르침은 군주가 훌륭한 정치를 하면 백성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음과 군자의 언행 방법에 대해 좀 더 집중되어 있다. 즉 부처

님의 가르침은 수행자의 길을, 공자의 가르침은 정치가의 길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제 논어의 구절을 통해 공자의 가르침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먹음에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 거처함에 편안함을 구하지 않으며, 일을 민첩히 하고 말을 삼가며, 도가 있는 이를 찾아가(자신의 그림을) 바로잡는다면, 학문을 좋아한다고 이를 만하다”(子曰 君子 食無求飽 居無求安 敏於事而慎於言 就有道而正焉 可謂好學也已)

공자는 군자의 길로써 자기 절제와 반성을 강조하였다. 스스로 바르게 되지 않고서 남을 다스릴 수 없다는 기본 전제 위에 정치를 실천한다. 이는 부처님이 <화엄경>에서 “왕이 백성을 다스리고자 하면 먼저 자기 몸을 다스려야 한다. 몸이 편안하면 마음이 화평하고, 정신이 깨끗하고 신체가 화락하며 교화가 그릇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맥락과 거의 일치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정치로써 인도하고 형벌로써 다스리면 백성들이 형벌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덕으로써 인도하고 예로써 다스리면 부끄러움도 없고 바르게 될 것이다.”(子曰 道之以

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위의 글은 공자의 정치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구절이다. 이를 통해 보면 공자는 단순히 공평무사의 정치만을 요구하지 않았다. 형벌로써 백성들을 겁박하여 다스리기보다 예와 예치로써 백성들을 인도하여 효와 충이 실현되는 국가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는 바른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전문성 왕의 나라와 다를 것이 없다. 불교의 전문성 왕이 깨달음을 이룬 임금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듯이 공자도 훌륭한 정치를 하고자 하는 군자에게 평소 자기반성을 강조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세 사람이 길을 감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으니, 그 중에 선한 자를 가려서 따르고, 선하지 않은 자를 가려서 자신의 잘못을 고쳐야 한다.”(子曰 三人行 必有我師焉 擇其善者而從之 其不善者而改之)

공자는 어진 사람을 보면 배울 것을 생각하고 어질지 못한 사람을 보면 스스로에게 그런 점이 없는지 성찰하라고 가르친다. 즉 평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어리석거나 방탕하지 않게 되어서 군자의 길로 나갈 수 있고 군자의 마음가짐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정치하는 자가) 참으로 자신을 바르게 한다면 정치하는 데에 무슨 어려움이 있었으며, 자신을 바르게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남을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子曰 苟正其身矣 於從政乎 何有不能正其身 如正人何)

공자는 스스로 반성하여 잘못이 없다면 백성을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공자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공자의 말씀이 정치가들에게 향해 있다면 부처님은 중생들을 향해 수행의 당위성과 방법을 말씀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불교는 유교에 비해 정치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해 주지 못했고, 유교는 불교에 비해 죽음에 대한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다. 공자는 괴이함과 용력과 패관과 귀신의 일을 말하지 않았지만(子不語怪力亂神), 불교는 죽음 이후의 극락과 지옥에 대해 많은 경전에서 설하고 있다. 불교와 유교의 이러한 차이점은 수천 년 동안 공존하면서도 서로에게 극한 압박을 가하지 않았던 이유라고 생각된다.

혹자는 조선시대에 송유역불 정책으로 불교가 혹독한 탄압을 받지 않았느냐? 라고 따져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권력자들은 불교의 정치와 경제적 권력을 빼앗기

는 했으나 그 신앙까지 탄압하지는 않았다. 오늘날 견재한 대부분의 불교 문화재들은 조선시대에 건립되었고, 그 주요한 시주자들은 왕실이나 양반들이었다. 성리학자들 중에 불교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은근히 불교를 신앙하였다. 불교는 유교에서 말하지 못한 죽음 이후의 문제에 해답을 제시하고 있었으므로 그들도 사찰에 가서 죽은 이의 생극락을 기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조선시대 선비들과 달리 주자의 성리학에 경도되지 않고 논어를 읽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 굳이 주자의 해석을 빌리지 않더라도 <논어> 그 자체만으로 공자의 가르침을 읽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자를 견어내고 <논어>를 읽어보면 부처님의 가르침과 공자의 가르침이 큰 틀에서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질도다. 안회에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마실 물로 누추한 시골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뎌내지 못하기를, 안회는 그 즐거움을 변치 않으니, 어질도다. 안회여!”(子曰 賢哉回也 一簞食 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不改其樂 賢哉回也)

위의 글은 공자가 제자였던 안회를 칭찬하며 했던 말이다. 이러한 공자의 말은 수행자를 향해 근육을 가르쳤던 부처님의 말씀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논어>에서 보여주고 있는 공자의 가르침 또한 수행자를 향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고, 수행을 통해 군자의 길로 나서라는 외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선입관을 버리고 눈과 귀를 열어 놓고 논어를 읽는다면 그 속에서 또 다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선(禪)에 치우쳐 있는 우리나라 불교계에는 공자의 말에서 배울 점이 많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터득함이 없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子曰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오늘날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불교 명상 수행이 삶에 지친 많은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고 있지만, 그 수행만을 강조하면서 불교의 전체인 것처럼 말한다면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나서 코끼리라는 기둥같이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격이 될 것이다. 수행만 하고 학문하지 않으면 생각이 아집에 빠질 수 있고, 학문만 하고 수행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비를 깨닫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내가 이해한 불교가 또 하나의 독단이나 집착이 아닌지 되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디자인 등록원

현 불 샵
단독입점

장인이 만든 명품 청동 촛대세트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사자·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촛대(大)

촛대(中)

촛대(小)

향로

향통

다기

품 명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 자 코끼리	(大)	51cm×21cm
		(中)	41cm×21cm
		(小)	35cm×21cm
향로	거 북 용 두	(中)	41cm×21cm
		(小)	35cm×21cm
다기	다 기	(大)	26cm×20cm
		(中) ㉠	22cm×14cm
		(中) ㉡	20cm×13cm
		(小)	17cm×12cm
향통	원 형	(大)	15.5cm×7.5cm
		(小)	11.7cm×5cm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